

“무안연꽃축제에서 시원한 여름 즐겨요”

회산백련지서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

오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대에서 '사랑·소망, 그리고 인연'이라는 주제로 '제22회 무안연꽃축제'가 개최된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무안연꽃축제는 개막행사인 연지방 소망등 달기, 백련 가래떡 나눔잔치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랑과 화합의 대행진을 시작으로 8개 분야 85종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받았던 '얼음나라 i-쿨존'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i-쿨존은 공공 열린 열음을 주제로 겨울 포토존, 아이스로드, 연 얼음물체험, 얼음놀이터 등 시원한 축제장을 선사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는 발이퐁퐁, 연꽃 얼음 물길

체험, 연꽃 소원유등 띄우기, 연꽃하늘 드론 시연 및 체험과 회산백련지 전역에 가상의 보물을 숨겨놓은 연꽃방축 AR 보물찾기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를 비롯해 108 혼들다리, 생태탐방로, 생태연못, 전통정원 등이 운영되며, 올해 새롭게 선보일 '평화의 동산'에는 다양한 연꽃과 한반도모양의 꽃단지, 포토존, 꽃 터널 등을 설치하여 회산백련지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공연행사로는 연꽃 군민노래자랑, 연꽃연가 사랑음악회, 무안 송달국악대제전 수상자 특별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연꽃 백일장 및 사랑대회, 황토골 무안요리 경연

대회, 연꽃 어린이 독서 골든벨대회 등의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밖에도 유리온실 수변무대에 연꽃등 설치, 다양한 레이저쇼, 연꽃 포토존 포토존, 버스킹 공연과 가벼운 음료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연빛 살롱을 운영하고

수련공원과 연꽃전망대에 연지방 LED 소망등 달기, 연꽃 소망유 등 띄우기, 연꽃등 달기 체험 행사를 진행해 연꽃과 음악, 아름다운 배경, 먹거리를 갖춘 야외 파티 공간으로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시원한 여름축제도 즐기고 백련향기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여수서 마을공동체 확산 위한 ‘찾아가는 마을학교’ 개최

내일 여수시·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공동 주관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학교가 여수에서 개최된다.

여수시는 오는 19일 시 보건소 회의실에서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18년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공동체는 지역 공동체 회복과 마을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에

는 일자리 창출의 한 분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마을학교는 마을공동체의 필요성과 역할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사전 신청을 한 시민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이해·필요성 △우수마을 운영 사례 발표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소개 △마을공동체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이다. 시는 마을학교 교육 이수자들이 마을공동체 리더 교육도 이수하고 전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드는 기초 단계로서 마을공동체 육성은 꼭 필요하다”며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군,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 실시

개장식 맞아 기계·금강·관매도 해수욕장 일원서



진도군이 최근 제268차 안전점검의 날과 해수욕장 개장식을 맞아 기계, 금강, 관매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안전한 여름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해수욕장 개장식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진도군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와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을이장, 주민, 부녀회 등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등 안전 행동요령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군은 해수욕장에 안전요원 2명과 119안전센터 해경 관계자 등이 상주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진도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때 이른 고온현상과 장마 및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등 기후변화 예측이 힘들고 휴가철 물놀이 증가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이다”며 “관광객들도 상항별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 장동면, 친환경 작목반 선진지 견학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시켜 소득 증대 앞장”

장흥군 장동면 친환경 작목반(작목반장 김재기)은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 함양과 유기농 면적 확대를 위해 지난 13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견학은 친환경농업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단지별 친환경

농업 선도농가 40명과 담당공무원 및 농업관계자 등 총 48명이 전남 나주시 농업기술원 및 무안군 친환경 선도농가의 친환경 벼 포장을 견학했다.

김광재 장동면장은 “친환경농산물 선진 재배기술 교육과 각종 시설을 견학하면서 우리지역도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농약, 유기농을 적극 유도하여 올해는 유기농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체험을 마친 한 작목반원은 “형식적인 견학이 아닌 농가들이 보고 느끼며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를 갖게 하는 유익한 선진지 견학이었다”며 “앞으로도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해 농가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복날엔 전복 먹고 무더위 이기세요”

행정수도 세종시서 2018 전복데이 기념행사 열려



완도군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세종특별자치시 료컬푸드 직매장 광장에서 열리는 2018 복날엔 전복, 전복데이 기념행사를 가졌다.

완도군은 2014년부터 매년 초복을 즈음해 무더위를 이기고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보양식을 찾

는 소비자에게 전복 먹기를 권장하고자 ‘전복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복죽 300인분과 전복 물회를 시식할 기회가 제공되어 관광객과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활전복과 전복 가공품, 해조류 등 완도 특산

품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청정바다 수도 완도와 전복 홍보를 위한 활전복 3피리 한 세트를 행사 첫날에는 300세트, 둘째 날 200세트를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이벤트도 마련되었다.

완도에서 생산된 전복은 맥반석과 초석으로 이루어진 청정바다에서 자란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며, 바다의 산삼이라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영양식품으로 해외 시장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싱싱한 완도 전복을 먹고 원기를 회복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복데이를 맞아 완도군 노화읍과 보길면에서는 8월 20일까지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완도군 e-shop 원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